

甌山思想과 그 世界史的 展開

-해원상생 · 천지공사를 中心으로-

김 영 두*

目 次

I. 머릿말

- | | |
|-----------------------------|-----------------|
| 1. 玄武經이 보여주는 것 | 4. 世界史證明과 장래 전망 |
| 2. 宗教位相과 至氣主義 | 5. 조정산의 무극도 좌표 |
| 3. 自然法과 辨證法世界 ; 佛
教 · 佛法 | II. 결론 |

I. 머릿말

姜甌山은 19世紀 말엽에 韓半島에 出現하여 解冤相生 · 天地公事を 하므로서 世界史를 5萬年仙境에 이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東西古
 今을 통해 그 類例를 찾을 수 없는 일로서 後世人으로서는 그 분 思想類型
 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럴만한 이유와 실제 자취면을 겸허히 考察해 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본고는 그 분의 유일한 眞作이라는 玄武經소식을 통해
 그 전면상을 검토해 보기로 하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줄거리만을 되도

* 고려대 명예교수. 법학박사

특이면 약술하기로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現下 實情이며 또 증산사상 같은 경우는 좀더 세월 흐름에 따라 立證되기를 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는 증산 당시와 그 이후 오늘날까지의 世界史진전에서 바로 玄武經 소식을 발견할 수 있음을 기본으로 삼기로 한다. 그러므로써 可能的 추론이 될 수 있을 것을 기약한다.

1. 玄武經이 보여주는 것

「益者三友 損者三友 其瑞在東 言聽 神 計用」己酉 正月一日 巳時라고 시작되어, 「水火金木 待時以成 水生於火 故 天下無相克之理」라고 하였다. 종래의 五行相生·相克說을 無相克의 相生原理로 止揚한 것이므로 이야말로 解冤相生·天地公事의 法度조정을 한 첫째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는 「天地之中央 心也 故東西南北 身依於心」이라고 「死無餘恨符」로 까지 그 分의 決斷 決心을 표명하였다.

그리고는 「充者慾也 以惡充者 成功 以善充者 成功」이라고 欲界人間的 사실相을 如實히 表明하였다. 天地의 中央이 心이라 한 것과도 함께 그 分의 종교位相이 불교적임을 示唆한 것이다. 「動於禮者 靜於禮曰 道理 靜於無禮則 曰無道理」라고 禮(道理)에서 動하기도 靜하기도 하는 것이 참된 道理라 하였다. 無禮인채로 靜하기만 하는 것은 無道理라고 불교계의 모종상황을 준엄히 비판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는 「誓者 元天地之約 有其誓 背天地之約 則雖元物 其物難成」이라고 17~8세기의 서양社會契約論的 민주주의에 대하여 그 종교원리와도 함께 준엄한 判定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는 「天文 陰陽 政事」를 大書特筆하여서는 「周易 書傳 詩傳 孟子 論語 中庸 小學 大學 通鑑 史略」一字五結을 左書右向케 하였다. 그 分이 北向座定하신 곳의 西쪽으로부터 東쪽으로 右向하는 中國古典精神의 이음인 것이다.

戊申臘消滅陰害符, 天地人神有巢文 基礎棟樑이 左書되어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右書가 따라왔다. 그 다음 基礎棟樑이 되어서는 魂魄 東西南北이 左書되고, 基礎棟樑이 右書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政事符左書인 右書 基礎棟樑 圖表가 되어 「基礎棟樑終 願戴有唐堯 億兆有願戴, 蒼生有億兆 育有蒼生 化有育 德有化 道有德 曰有道」가 左書되어 그 分의 政事念願이 어떠한 것인가를 如實히 證明한다. 右書 左向이 증산이 좌정하신 韓國으로부터 西쪽으로 向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는 「耳目口鼻, 性理大全八十卷」 震默大師 聰明道通이라는 右書 特筆이 大書되어 心靈神台가 左書되는 圖表상징이 따랐었다. 이것이 佛敎佛法 原理를 聰明 道通인 震默大師로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는 「魂返本國 勿施 睚眦 伏祝 化被草木 賴及萬方 維歲次 己酉正月二日 昭告로 南無阿彌陀佛에 게 大享 陳設한 享員으로 左右書 混法을 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震默大師의 故事를 두고 그러한 상징을 한 것임이 명확하다.

그리고는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至氣今至 願爲大降」을 다시 다짐하여서는 「天地誠敬信」을 右書特筆하였다. 그 分의 念願 祈願과도 함께 天地 誠敬信을 다짐한 것이다. 虛靈符, 知覺符, 神明符 左書인 武夷九曲 圖表가 따른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는 決定的 지적을 한 것으로 「受天地之虛無 仙之胞胎, 受天地之 寂滅 佛之養生, 受天地之以詔 儒之浴帶」라는 右書에 冠旺符가 따라 兜率虛無 寂滅以詔」 右書가 된것도 의미심장한 것이다. 즉, 天地의 虛無를 받아 胞胎 하고 天地의 寂滅(惡이 고요이 멸한 '영원의' 平和安樂을 뜻함)이 되는 佛의 養生인 것이다. 이에서 成人冠旺이 되는 儒의 浴帶인 것이다. 彌勒佛이 계시는 兜率天의 虛無, 寂滅로 以詔되는 바임을 右書로서 다짐한 것이 그 分이 金山寺 미륵불에 托靈出現하셨다는 것에 부합한다. 右書 玉樞統符圖가 뒤따랐다. 그리고는 病有大小勢 大病無藥 小病或有藥이라 하여서는 然而大病之藥 安心安身이고 小病之藥 四物湯八十帖이라 하였다. 또 다시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至氣今至 願爲大降의 祈禱가 되어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라고 大小病 모두가 無道에서 입을 선언하여서는 得基有道 則大病勿藥自效하고 小病도 勿藥自效라 하였다. 道가 있게 됨을 얻을 것 같으면 大小病 모두가 藥을 쓰지 않아도 절로 낫는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至氣今至

四月來 禮章이라 하여서는 그 분자신이 医通임을 다짐하였다. 그 右書가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가 되어서는 病勢로서 有天下之病者 用天下之藥이던 그 病이 낫는다 하였다. 聖父, 聖子, 聖身, 元亨利貞奉天地道術藥局이 全州銅谷에 있어 生死를 辦斷한다 하여서는 大仁大義는 無病이라고 하여 三界伏魔大帝神位遠鎮天尊關聖帝君이라고 關雲長을 지적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그리고는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이라 하여서는 孔子魯之大司寇 孟子善說齊梁之君 西有大聖人曰西學 東有大聖人曰 東學 都是教民化民이라고 선언하였다. 「知天下之勢者」에 天下之生氣가 있고 暗天下之勢者에 天下의 死氣가 있다고 天下大勢에 밝아야 할 점을 지적하여서는 近日 日本의 文神 武神들은 함께 道通하기에 힘쓰는데도 朝鮮國은 上計神 中計神 下計神이 依託할 곳이 없다고 甌山 당시의 狀況을 恨歎하였다.

宮商角徵羽를 聖人이 지은 바 天下의 職에 앞서고 天下의 業에 앞서는 職이 医이며 業은 統이라 하였다. 聖之職 聖之業을 不可不文字로 사람에게 이룩하는바 그분 자신이 医統임을 재다짐한 것이다. 그리고는 天下가 紛紜하여 自作死黨한다고 警告하여서는 그 이유를 들어 維歲次 戊申 十二月 七日에 道術…(姜一淳)이 敢昭告于로 君, 父, 師에게 지극한 겸사로 泣祝問安하였다. 그리고는 天地鬼神에게 祝文한 바 人道라는 것이 君不君, 父不父, 師不師를 願하는 바 君師父가 臣, 子, 無와 師의 無學이던 그들이나마 성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天地鬼神들은 크게 자세히 垂察하라 하였다.

그리고는 또다시 佛이 形體이고 仙이 造化이며 儒가 凡節이라 하여서는 無奈八字 至氣今至 願爲大降인 至氣主義 祈願을 하였다.

그리고는 欲速不達이라고도 경고하여서는 또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라 하여 九年洪水 七年大旱인 末世相을 풍자하였다.

佛仙儒가 一元數 六十 三合爲吉凶度數라 하여 十二月 二十六日 再生身이라는 기록으로 天文 地理 風雲 造化 八門遁甲 六丁六甲 智慧勇力 道通 天地報恩이라 하였다. 이것이 甌山自身の 道通경지와 天地報恩의 神通自在를 示唆한 것으로, 至曰 天地禍福至이고 今日 至無忘이라 하여서는 氣曰 天地禍福氣이고 降曰天地禍福降이라고도 인간 하기 대로에 매인 天地의 至公無私임을 添書한 것이다.

그리고는 聖師 醫通이 慶州 龍潭에 있고 無極神인 大道德이 天命을 받들고 神敎를 받들어 大先生앞에 律令을 審行하는 바 먼저 알아 後에 覺하므로서 元亨利貞하는 布敎五十年 工夫라고 大團圓시킨 擲筆을 한 것이다.

以上 玄武經소식을 그 맥락·체계 그 대로에서 증산의 종교 위상과 그 분의 道通神秘 및 더구나 解冤相生·天地公事の 至氣主義적 實踐임을 살폈다. 圖表는 그 분만의 神秘에 속하여 이러쿵 저러쿵 따질 수 없는 것이다.

2. 甌山の 宗教位相과 至氣主義

(1) 東西諸大宗教을 통합한 道敎的 佛敎性

첫째론 佛의 形體, 仙의 造化, 儒의 凡節로 西의 大聖人, 東의 大聖人등 一神敎의 大聖人(예수)를 포함시킨 것임이 주목된다. 증산이 서양의 「마레오릿지」와 동양 한국인 震默大師의 故事를 들어 하늘의 文明을 땅위에 전달한 것이라고 선언한 典經에 관련되는 극히 중대한 소식인 것이다.

東西 諸 大 宗教에 걸쳐 佛敎 佛法原理를 道敎的으로 實踐한 至氣主義的 念願 祈禱임이 玄武經全篇를 貫通하는 두드러진 특징인 것이다. 「侍天主…」至氣主義가 거듭거듭 다짐된 그러한 것으로 이것이 儒敎의 冠旺凡節이 되기도 한 것이다. 인간이 어머니의 胞胎로 虛無에서 싹터 生命養成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出生하고 育成되는 養生이 되어 成人凡節로 冠旺하는 序列과 正임을 두고, 無에서 有가 되는 현실세계임을 총괄 포섭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일은 그 至氣主義가 그 분의 海源상생과 天地公사가 되는 道通경지인 데에 있다. 解冤相生으로 病을 고쳐 安心立命케 하므로서 五萬年仙境에 이르도록 한 그러한 것으로 오늘날의 이른바 地球村, 宇宙時代라는 理想境展地를 聯想케 한다.

天地人 三才에 神을 결합시켜 神의 역할을 重視하므로서 東西諸大宗教를 종합한 甌山自身の 至氣主義的 位相임이 명백하다.

3. 自然法과 辨證法 世界: 佛教 · 佛法

동양의 옛 春秋時代에 老子가 그 自然法소식임을 비로소 종교적 次元으로 大 선언하였다.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이라고 사람은 地를 본떠고 地는 天을 본떠며 天은 道를 본떠는 바 그 道는 自然을 본떴다고 自然이 最高眞理(法)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道가 一을 生하고 一은 二를 生하며 二는 三을 生하여 三에서 萬物이 生한다. 그리고 그 萬物은 氣로 冲하면서도 和」하는 것이라고도 大宣言하였다.(道德經) 이것이야말로 辨證法世界인 人間 歷史發展을 바로 自然法의 至氣表現으로 證言한 것이다.

辨證法은 歷史發展의 現實을 두고 眞理的으로 辨別하는 方法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 현재, 장래를 두고 正(thesis), 反(anti-thesis), 合(syn-thesis)이라고 正, 反, 相對的인 長短點을 短의 止, 長의 揚으로 止揚하는 종합으로서의 영원의 역사진전이라는 것이다. 그 自然法 眞理소식임을 동서고금의 聖賢 哲人들이 通察하였다. 서양의 헤겔(Hegel)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낮에는 눈이 멀어 조용히 앉아만 있다가 황혼이 되면 보이기 시작하여 날개를 펼쳐 낮동안의 人生鬪爭터를 두루 살핀다고 哲人을 올빼미에 비유한 世界史 역사 철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甌山은 헤겔보다 世紀半이후인 19世紀말엽에 한 반도에 출현하시어 올빼미는 커녕 인간 有史이래 장래 영원에 걸친 實相을 如實히 明視하였다. 이것이 20세기 벽두서부터 9년간 解冤相生, 天地公事를 한 것을 己酉年(1909) 正月 1日 巳時에 玄武經을 始作하여 다음 날인 正月2日에 南無阿彌陀佛 앞에 大享陳設한 (姜甌山)享員의 祈祝인 것이다. 이 사실이야말로 비길바 없는 그분의 精誠, 至氣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 분이 金山寺 미륵불에 托靈하여 사람몸으로 출현하였다고 스스로를 證言하여 西方極樂世界의 阿彌陀佛에게 祭禮한 五萬年仙境에의 祈願모습인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것이 과연 世界史에 있어 얼마큼이나의 效能으로 나타났는가 여부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至氣今至 願爲大降인 祈禱文 자체서부터 吟味해야 할 것이 된다.

첫째로 그 至氣主義原理인 老子의 道德經이야말로 지극한 民主主義를, 民主化 사실 철저로까지 규정하였다. 공자보다 年長인 그는 百姓의 淳朴인

自由, 平等사실을 물(水)에 비유하여 물(水)의 淸淨自由와 水平平等이기도 하는 것이 民生의 本來모습임을 지적하였다.(道德經) 그 淸淨無垢한 透明自由와 부드럽기 짝이 없어 조고마한 微風에라도 波動하는 영원의 生命力인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것일지라도 덩치 파괴하는 비길 바 없는 強力임을 지적하였다. 즉 제아무리 暴君적인 탄압 일지라도 以風治風적으로 과멸케하는 民主 自由 平等의 영원의 승리인 것이다.

老子는 그 영원의 自由, 平等인 民主社會, 民主化인 歷史進行임을 최초로 自然道, 自然法眞理로 大宣言한 것이다.

물론 그 종교적 次元인 道德經인 것으로 그가 天下를 구제하기 위해 坐不安席으로 바쁜 孔子에 대하여 교만을 없애라고 비판한 것도 그 나름 이유있는 일이었다. 無가 자연법 진리임을 두고 有의 天下大亂을 三綱五倫이니등 有의 人道잡시고 구제하려는 것이 語不成說이 아니냐는 것이다.

百姓은 오히려 어리석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하였다. 이것이 만주 승리를 기다리게 하는 老子의 뜻이며 孔子에 대한 비판도 그러한데 있다. 여기에 이른바 「時中」사상이 있는 것으로 유교의 「中庸」과, 불교의 不二法門 「中道」사상도 실은 그러한 것이다.

그 中道야말로 眞理에 適中하는 과거, 현재, 장래 영원의 課題인 것으로 甌山이 佛敎, 佛法原理를 도교적으로 實踐하여 유교의 법절뿐만 아니라, 서양의 一神敎 소식까지도 종합한 至氣主義가 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不二」法門으로까지 현실 순간 순간이 眞理表現임을 부처님께서 증언하셨다. 변증법의 正, 反, 合 구별일 필요도 이유도 없는 見性成佛의 중생구제 自律이 되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善男子, 善女人이 바로 보살임을 선언하셨다.(金剛經) 견성성불은 나 中心의 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을 없애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릇된 것이라는 나름 진리잡시의 法相을 없애는 데서 성립한다. 그러한 「無住相布施」에서 보살의 六婆羅蜜 실천이 自律이 되는 바 七佛通渴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가 그것을 증명한다.

古代希臘의 「소크라데스」가 「너 自身을 알라」라고 한 것이 바로 불교적인 것이었다. 고대희랍을 思考의 길로 인도한 인도 出身 「올테우스」의 敎示, 敎

리가 그것을 증명한다. 「프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서양세계 오늘날 경지로 이끈 것이 「소크라테스」의 弟子들이었다.

유교의 「中庸」이 「窮理盡性」을 말하고 「誠者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라 한 것도 佛敎의 中道에 포함되는 것임을 龜山은 「誠, 敬, 信」으로까지 다 집하였다. 龜山이 解冤相生, 佛法정신으로 종합실천한 儒·佛·道 至氣主義에 기독교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도 포함시킨 것이다.

「至氣主義」인 解冤相生, 天地公事가 龜山의 특징인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더 이상 긴 설명일 필요 없이 바로 玄武經이 증명한다. 理氣의 氣論的 그러한 것으로 유교 性理學의 理氣論이 龜山에 의하여 理의 至氣主義로 世界史 구제인 解冤相生, 天地公事로 實踐된 것이다. 이것이 震默大師의 故事와 南無阿彌陀佛에게 祭典한 강증산의 그 모습임이 명백하다.

4. 世界史증명과 장래전망

증산이 先天史는 不條理 특성인 원한 사무침이었다고 그것을 解冤相生케 한 後天開闢 천지공사를 했다는 先天史경우를 여기서 논할 겨를은 없다.

증산 당대와 그 이후 오늘날까지의 世界史자취를 약술하는 정도로 그치기로 한다.

증산이 19世紀 말엽인 1871년에 출현한 같은 해에 20世紀의 二次世界大戰을 挑發한 獨, 伊, 元身인 伊太利, 獨逸의 統一帝國이 成立하였다.

그 後發統一帝國이 先發帝國인 英, 佛 植民帝國主義를 克服代替하려는 히틀러, 뭇소리니의 이른바 제3帝國主義挑發이 二次世界大戰이었다. 21세기 이후의 千年 기독교王國건설이라는 大戰遂行이 그 나름 龜山思想비슷한 至氣主義的 理想圖였음도 사실이다. 사실 英, 美, 佛등 先進의 경우만 하여도 그들 西力東侵은 이미 19世紀 中葉에 東洋世界에 몰여들어 특히 한반도 민족사가 그야말로 上計神, 中計神, 下計神이 依託할 곳 없는 風前燈火格이었다.

증산의 解冤相生, 천지공사는 日本이 한국을 併呑한 1910년 前年인 1909년에 끝난 것으로 그것이 1909년인 己酉年 正月 1일에 시작되어 正月二日에 昭告된 南無阿彌陀佛에의 大亨陳說의 祭典이었다.

1914년에 獨逸統一帝國의 皇帝가 도발한 1次世界大戰은 獨逸敗北으로 끝났다. 戰後의 先進帝國들의 조치에 앙심을 품은 獨, 伊의 獨裁者들이 二次大戰을 挑發하여 이에 有史以來의 侵寇日本이 加擔한 것이다.

그 挑發者들 敗北로 二次大戰이 終結된 해가 1945년이고 民族史가 다른 여타 植民地해방과도 함께 해방된 것이지만 美, 蘇의 割占으로 南北이 分斷되었다. 南北韓의 對決이 거기에서 자리잡혀 1950년의 韓國戰爭이라지만 實은 제3次世界大戰이 北韓南侵으로 연출되었다. 그 3년 戰爭 어느쪽도 이기고 진 것이 아닌 38線再확인 休戰이 된 끝에 南北韓 對決은 보다 심각한 착잡이였었다. 일촉직발적으로 4次世界大戰이 또다시 한반도에서 爆發할 危機순간도 겪었었다. 그러나, 1981년 1, 12에 南韓 大統領이 1, 12선언을 하였고 88년에는 세계올림픽이 서울에서 開催된 사실이야말로 甌山의 解冤相生과 天地公事 至氣主義의 펼침인 片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유구한 세월에서는 순간중의 순간에 속하여 오늘날은 地球村, 宇宙時代라고도 世界化물결에 언저 한반도에서 또 무슨일이 터질지 모를 世界平和主義의 危局이 되고 있다.

甌山의 解冤相生, 天地公事が 그 나름나름 증명된 그러나 危局現況인 世界史주름살이라 할 수 있다.

사실 2次世界大戰 직후에는 解冤相生的 마아살 計劃 실천이 있었고, 50年の 3次大戰(한국전쟁)도중에는 美國 트르만 大統領의 英斷이 世界史를 破滅의 危局으로 부터 구제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것들이 解冤相生을 契機하게 한 것임은 부인 못할 일이다.

이제는 러시아의 轉換, 中國의 轉機등 民主主義 승리와 그 自由, 平等의 계기가 版圖大적으로 주름살 잡힌 不安에서나마 진전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中東이 解冤相生이 될듯 말듯한 二次大戰이후의 冷熱戰 거듭거듭인 이지도 途中현상인 것이다. 一神敎의 두갈래 충격 갈등이 이지도 흥정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先天史를 解冤相生케한 後天開闢 天地公事 法度數가 그 후 87년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틀림없이 解冤相生이 싹터 진척되고 있는 바 地球村, 宇宙時代의 民主主義아님이 없는 大小 諸族·諸國의 움직임이 그러한 것이다.

5. 조정산의 无極道 座標

甌山教界 조정산의 无極道이 일본에 併合된 민족의 운명을 두고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증산교를 進一步적으로 발전시킨 것임이 분명하다. 즉 老子 自然法의 無原理 그대로를 내세워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 冲氣而和」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甌山思想을 순수 도교적으로 昇華시켜, 國權喪失된 無로부터 國權을 되찾는 有에의 出發로 증산을 이은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증산의 道教的 純粹性으로 佛教性 乃至 儒敎의 至氣主義의 含蓄도 담긴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1945년의 민족해방과 建國으로 일단은 성취하였었다. 그러나 民族統一獨立國家로서의 그러한 것은 未知數로 남은 더구나 昨今の 危局 주름살인 격이다. 無極이 太極이되어 陰陽二가 되는 과도기의 南北韓 兩立형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 二에서 三이 되는 平和統一祖國이라야 할 當面 課題인 것이다.

必然적으로 成就될 甌山 사상의 이때까지의 經驗증명인 것으로, 다만 「時中」문제에 속하여 그 時中이 희망어린 未知數로 설레이고 있다. 無極이 有極에서 原始返本하는 還源임이 兩次世界大戰과 50年の 三次大戰적 한국전쟁으로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증산 해원상생, 천지공사의 後天史開闢 法度數조정인 天地公事가 그러한 것이 었다고도 할 수 있다.

1919년의 3, 1운동 독립만세 舉族蹶起가 바로 甌山 天地公事法度數실천이었고 그것이 증산 이후 10년의 3, 1운동이었음이 앞으로 早晚간에 民族 平和統一로 이룩될 것이다. 민족 평화통일이 세계사의 핵심문제가 되는 바 世界史 解冤相生도 거기서 자리잡히게 될 것이다. 世界史 周知의 사실이기도 하는바, 그러나 希望어린 공포상이 아직도 38線 육신각신으로 危局되고 있는 것이다.

甌山이 萬國活計 南朝鮮이라 하고 淸風明月 金山寺라 하였다. 世界史의 해원상생 發祥地가 南朝鮮이라는 것이고 그 淸風明月이 金山寺라고 한 것이 주목된다. 그 분은 佛教的 道敎性으로 一心을 가진 자에게는 내가 어디던지 가리라고도 하였다. (전경) 민족사는 물론이거니와 世界史 어느 민족, 어느 곳에도 가겠다는 그 분의 大다짐-해원상생, 천지공사 有終의 美를 거

두졌다는 大宣言인 것이다.(典經)

II. 결론

나머지 문제는 그 분이 上帝, 天, 하나님, 神으로 通稱되기도 구별되기도 하는 후세사의 경험에 비추어 그 분의 正體가 그 어느것에 속하는가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관하여는 位階的인 通稱이 同一하기도 구별일 수도 있는 두가지 뜻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바로 직접적인 例로 佛敎의 觀自在보살의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임을 들 수 있다.

관자재보살이 심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에 「五蘊(5은)이 모두 空하다 하고서는 그 끝에 반야바라밀다呪를 설하셨다. 그 설하신 분이 바로 관자재보살이심이 甌山의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至氣今至 願爲大降」呪와 같은 것이다. 甌山이 上帝이기도 天, 하나님, 神도 되기도할 뿐만 아니라 上帝와 天, 하나님, 神이 구별되는 位階的인 뜻도 되는 것이다. 관자재보살님이 바로 부처님이기도 부처보살의 구별이기도 하는 것과 같다. 모두가 그 나름 정당성이 되는 것으로呪는 본질적으로 중생에게도 그렇게 되는 『生佛不二』인 것이다.

이에 있어 한가지 특기할 일은 甌山敎의 上帝님은 造化政府의 主宰者로서 天, 하나님, 神을 調和케 한 최고 권능이라는데 있다. 여기에 東西諸大敎에 대한 眞理의 調和로서의 佛敎的 道敎的 造化政府의 뜻이 있다. 甌山の 敎理敎義가 바로 그러한 것임은 上述한 바이다.

以上 甌山思想과 그 世界史的 展開를 줄거리만의 요약으로 약술한 바 요컨데 그 분의 宗教位相과 그 분이 (九天)上帝님이 되기도 하는 따지자면 佛敎的 道敎인 새 歷史開闢創造主라고 할 수 있다.